

WEBVTT

00:00:10.169 --> 00:00:12.371

안녕하세요?
장동준 샘입니다.

00:00:12.471 --> 00:00:16.168

이번 시간 국어의 규범
마지막 시간입니다.

00:00:16.268 --> 00:00:19.272

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
로마자 표기법인데.

00:00:19.372 --> 00:00:23.507

사실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이
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

00:00:23.607 --> 00:00:27.976

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
문제를 풀기가 힘들어요.

00:00:28.076 --> 00:00:32.637

그래서 이 부분도 만화와
함께 저의 수업과 더불어서

00:00:32.737 --> 00:00:35.240

완벽해지는 시간을
가졌으면 좋겠고요.

00:00:35.340 --> 00:00:38.247

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38.347 --> 00:00:40.376

여기 지금 컷이 나와 있죠.

00:00:40.476 --> 00:00:47.188

이것은 지금 165쪽에 네 번째
컷에 나와 있는 만화인데요.

00:00:47.288 --> 00:00:50.095

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.

00:00:50.195 --> 00:00:53.558

외국에서 새로운 문화와
함께 말이 들어와 쓰이면

00:00:53.658 --> 00:00:58.453

외국에서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
언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.

00:00:58.553 --> 00:01:04.200

처음에는 그 말에 대한 발음과 표기가
제각각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.

00:01:04.300 --> 00:01:08.084

그래서 이를 그대로
사용하면 국어는 혼란스럽고

00:01:08.184 --> 00:01:09.689

복잡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.

00:01:09.789 --> 00:01:12.250
어때요?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하죠.

00:01:12.350 --> 00:01:16.202
어떤 외래어가 들어오는 순간,

00:01:16.302 --> 00:01:21.836
우리가 그거를 받음하기 위해서
엄청나게 고충을 겪는다는 뜻입니다.

00:01:21.936 --> 00:01:24.660
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.

00:01:24.760 --> 00:01:32.014
f 발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
잡아가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.

00:01:32.114 --> 00:01:35.839
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
규정을 정해줌으로써

00:01:35.939 --> 00:01:39.686
우리가 혼란에 빠지지
말자는 이야기입니다.

00:01:39.786 --> 00:01:43.680
그렇다면 지금부터
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데

00:01:43.780 --> 00:01:45.732
165쪽에 여섯 번째 컷.

00:01:45.832 --> 00:01:50.583
생강 국어 문법 여섯 번째 컷을
보면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.

00:01:50.683 --> 00:01:53.642
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

00:01:53.742 --> 00:01:56.741
외래어의 표기를 하나로
통일할 필요성이 생겨

00:01:56.841 --> 00:01:59.543
외래어 표기법이
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

00:01:59.643 --> 00:02:02.775
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
쓰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는

00:02:02.875 --> 00:02:09.043
이런 혼란스럽게 쓰는 표기법을 딱
하나로 고정시키겠다는 이야기에요.

00:02:09.143 --> 00:02:15.716
그러면 166쪽으로
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2:15.816 --> 00:02:21.025
우리가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의
로마자 표기법 2개를 배우잖아요?

00:02:21.125 --> 00:02:25.538
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같은 경우는
다섯 가지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.

00:02:25.638 --> 00:02:28.052
몇 가지? 다섯 가지.

00:02:28.152 --> 00:02:33.153
제1장 표기의 원칙, 이 부분만
우리가 잘 익혀주면 돼요.

00:02:33.253 --> 00:02:38.223
보니까 1항, 2항, 3항,
4항, 5항이 있죠.

00:02:38.323 --> 00:02:43.992
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
차근차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

00:02:44.092 --> 00:02:47.753
일단 첫 번째로 제1항이 있습니다.

00:02:47.853 --> 00:02:49.550
일단 제1항의 내용을 볼게요.

00:02:49.650 --> 00:02:53.373
166쪽에 보면 제1항이라고
해서 뭐라고 써있습니까?

00:02:53.473 --> 00:03:00.737
외래어는 국어의 현용
24자모로만 적는다.

00:03:00.837 --> 00:03:02.691
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

00:03:02.791 --> 00:03:06.093
제1항의 내용이에요.

00:03:06.193 --> 00:03:09.917
1항의 내용을 다시 한 번
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3:10.017 --> 00:03:21.163
외래어는 국어의 현용, 현재
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

00:03:21.263 --> 00:03:30.990
현용 몇 개? 24자모만으로 적는다.

00:03:31.090 --> 00:03:35.968
이것을 이해해야 돼요.

00:03:36.068 --> 00:03:39.712
국어에서 현재 사용하고
있는, 여기 나와 있죠?

00:03:39.812 --> 00:03:42.819
사용하고 있는 24 자모만을
사용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.

00:03:42.919 --> 00:03:49.151
바로 이 발음들처럼 국어에 없는
외국어 소리를 적기 위하여

00:03:49.251 --> 00:03:55.470
별도의 문자를 만들지 않겠다는
의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

00:03:55.570 --> 00:03:57.269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03:57.369 --> 00:04:00.896
그러니까 지금 국어에 없는
외국어 소리까지 다 지정해주면

00:04:00.996 --> 00:04:04.176
정말 우리가 외워야 될
게 너무나 많아집니다.

00:04:04.276 --> 00:04:05.868
부담스러워요.

00:04:05.968 --> 00:04:09.015
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는
국어의 현용 24자모,

00:04:09.115 --> 00:04:13.398
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
것들로만 적어주자는 이야기입니다.

00:04:13.498 --> 00:04:17.727
그래서 다음 컷 보면, 166쪽에
여섯 번째 컷을 보세요.

00:04:17.827 --> 00:04:23.255
외래어는 국어의 어휘이므로
이를 표기하기 위하여

00:04:23.355 --> 00:04:25.988
새로운 표기 문자를 만들
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.

00:04:26.088 --> 00:04:30.041
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아차할
법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.

00:04:30.141 --> 00:04:31.387
바로 뭘니까?

00:04:31.487 --> 00:04:34.867
외래어는 국어의 어휘다,
이거 당연한 거죠.

00:04:34.967 --> 00:04:37.525
사실 이거는 초등학교
때부터 배웠던 것들인데

00:04:37.625 --> 00:04:40.341

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이해를
못한 친구들이 있어요.

00:04:40.441 --> 00:04:43.507

외래어를 외국어랑 똑같이
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.

00:04:43.607 --> 00:04:46.734

아니죠, 외래어는 분명
출처는 외국이었지만

00:04:46.834 --> 00:04:49.354

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말처럼
쓰이는 어휘입니다.

00:04:49.454 --> 00:04:50.848

그거는 무슨 이야기예요?

00:04:50.948 --> 00:04:53.591

우리말처럼 이미 쓰이는
어휘이기 때문에

00:04:53.691 --> 00:04:56.667

외래어는 사전에 실려
있어요, 없어요?

00:04:56.767 --> 00:04:58.242

있죠.

00:04:58.342 --> 00:05:00.964

예를 들어서 빵,
빵이 무슨 말이에요?

00:05:01.064 --> 00:05:02.267

빵 원래 우리말이에요?

00:05:02.367 --> 00:05:04.527

아니란 말이죠, 빵은
포르투갈 말입니다.

00:05:04.627 --> 00:05:09.144

포르투갈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
현재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것은

00:05:09.244 --> 00:05:10.537

우리말처럼 쓰이고 있어요.

00:05:10.637 --> 00:05:13.340

그래서 우리 사전에 들어가 있죠.

00:05:13.440 --> 00:05:16.607

표준 국어 대사전에
기록돼 있단 말이에요.

00:05:16.707 --> 00:05:20.850

그래서 여기 보면 외래어는
국어의 어휘이므로

00:05:20.950 --> 00:05:23.348

이를 표기하기 위하여 새로운

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.

00:05:23.448 --> 00:05:25.295
계속 이어서 갑니다.

00:05:25.395 --> 00:05:28.597
만약 새로운 글자를 외국어 소리에
하나하나 연결해서 만들게 되면

00:05:28.772 --> 00:05:33.180
국어 사용자에게 엄청난
부담이 될 수 있다.

00:05:33.205 --> 00:05:36.205
이런 이야기입니다.
아시겠죠?

00:05:36.305 --> 00:05:38.767
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를
하면 되는 것이고.

00:05:38.867 --> 00:05:43.801
다음 제2항으로
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5:43.901 --> 00:05:47.409
2항의 포인트 장면을 제시했는데요.

00:05:47.509 --> 00:05:51.671
fighting이라는 말을
어떤 사람은 파이팅으로,

00:05:51.771 --> 00:05:54.970
어떤 사람은 화이팅으로
쓴다면 어떻게 될까요?

00:05:55.070 --> 00:05:58.364
우리 친구들이 이런 말 많이 쓰죠.

00:05:58.464 --> 00:05:59.582
선생님 파이팅!

00:05:59.682 --> 00:06:02.026
저도 우리 친구들에게
파이팅이라는 말 많이 쓰지만.

00:06:02.126 --> 00:06:03.657
그런데 제각각입니다.

00:06:03.757 --> 00:06:05.575
어떤 사람은 화이팅이라고 하고

00:06:05.675 --> 00:06:07.375
어떤 사람은 파이팅이라고 합니다.

00:06:07.475 --> 00:06:10.286
그런데 이것도 정해줬어요,
어떤 거로 쓰자고.

00:06:10.386 --> 00:06:11.598
일단 정답은 뭘까요?

00:06:11.698 --> 00:06:14.268

파이팅이 맞을까요,
화이팅이 맞을까요?

00:06:14.368 --> 00:06:16.752

그런데 의외로 화이팅을
많이 쓰더라고요.

00:06:16.852 --> 00:06:19.052

그런데 맞는 것은 파이팅입니다.

00:06:19.152 --> 00:06:22.611

f 발음을 우리는 표.

00:06:22.711 --> 00:06:24.838

이거로 쓰기로 했어요.

00:06:24.938 --> 00:06:27.755

ㅎ이 아니고 이거로
쓰기로 했다고요.

00:06:27.855 --> 00:06:31.850

현재 표기 규정입니다.

00:06:31.950 --> 00:06:34.768

물론 이렇게 썼다고
해서 뭐라고 안 해요.

00:06:34.868 --> 00:06:39.165

하지만 시험에서는
틀릴 수 있다는 거.

00:06:39.265 --> 00:06:43.452

그래서 제2항의 내용을 보면 바로
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

00:06:43.552 --> 00:06:46.480

제2항 볼까요?

00:06:46.580 --> 00:07:02.990

외래어의 1음운은, 하나의 음운은
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.

00:07:15.546 --> 00:07:19.565

영어 f를 국어로 어떻게
표기할지 혼란에 빠질 것이다.

00:07:19.665 --> 00:07:22.344

그래서 외래어의 1음운은
1기호로 적는 원칙은

00:07:22.444 --> 00:07:24.977

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,
이렇게 되어 있죠.

00:07:25.077 --> 00:07:28.988

그래서 지금 보면 파이팅뿐만
아니라 뭐도 나와 있습니까?

00:07:29.088 --> 00:07:30.722

film도 나와 있어요.

00:07:30.822 --> 00:07:34.455

film도 필름 이렇게 쓰는 게
아니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?

00:07:34.555 --> 00:07:43.893

이거를 쓸 때는 **ㅎ**을 쓰는 게
아니고 **표**을 써서 필름인 것이죠.

00:07:43.993 --> 00:07:47.674

필름 같은 경우는 워낙 필름이라고
많이 썼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데

00:07:47.774 --> 00:07:50.142

화이팅, 파이팅 같은
경우는 헛갈리니까

00:07:50.242 --> 00:07:53.013

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
나올 수가 있죠.

00:07:53.113 --> 00:07:57.056

헛갈리는 지점들, 즉 변별을
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때

00:07:57.156 --> 00:07:59.459

화이팅, 파이팅 같은 예시가
나올 수 있다는 거죠.

00:07:59.559 --> 00:08:06.032

그다음에 제3항으로 가보겠습니다.

00:08:15.315 --> 00:08:18.856

제3항은 받침에 대한 규정입니다.

00:08:18.956 --> 00:08:21.637

외래어 표기를 할 때
받침에 대한 규정.

00:08:21.737 --> 00:08:28.268

받침에는 다음 자음만
쓴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8:28.368 --> 00:08:40.106

ㄱ, ㄴ, ㄷ, ㄹ,
ㅂ, ㅅ, ㅇ.

00:08:40.206 --> 00:08:47.034

이것만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.

00:08:47.134 --> 00:08:49.804

갑자기 이거 보니까 떠오르는
거 하나 있지 않아요?

00:08:49.904 --> 00:08:51.797

우리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.

00:08:51.897 --> 00:08:56.231

ㄱ, ㄴ, ㄷ, ㄹ, ㅁ,
ㅂ, ㅇ 이런 것들 생각나죠?

00:08:56.331 --> 00:08:57.895
그런데 그거랑 별개입니다.

00:08:57.995 --> 00:09:02.065
이런 거는 외워주셔야
되는 부분이에요.

00:09:02.165 --> 00:09:06.507
외래어에서 이런 것들을 쓴다는
것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인데.

00:09:06.607 --> 00:09:11.068
장면을 보면 모음으로 된
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경우

00:09:11.168 --> 00:09:15.262
'로봇이, 로봇을'을 로보시, 로보슬과
같이 읽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

00:09:15.362 --> 00:09:17.420
로봇으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.

00:09:17.520 --> 00:09:18.941
이렇게 되어 있죠.

00:09:19.041 --> 00:09:26.241
167쪽에 네 번째 컷 보면

00:09:26.341 --> 00:09:30.258
현대 국어의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ㄱ,
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ㅇ

00:09:30.358 --> 00:09:31.979
7가지 소리만 실현된다.

00:09:32.079 --> 00:09:34.442
즉 음절의 끝소리
규칙이 나와 있는데

00:09:34.542 --> 00:09:41.574
외래어 표기법은 그중 ㄷ만 ㅅ으로
바꾸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.

00:09:41.674 --> 00:09:43.206
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

00:09:43.306 --> 00:09:47.799
로봇의 끝음절이 t로 소리나니까
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고려해서

00:09:47.899 --> 00:09:52.147
ㄷ으로 써야 될 것 같지만
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

00:09:52.247 --> 00:09:54.806
모음으로 된 형식
형태소와 결합될 경우에

00:09:54.906 --> 00:09:57.624
로보시, 로보슬과 같이 읽게 되니까

00:09:57.724 --> 00:10:01.262

ㅅ 받침으로 표시하도록
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10:01.362 --> 00:10:05.786

그래서 여기서 헛갈린 만한
게 이런 것들이 있죠.

00:10:05.886 --> 00:10:11.213

커피숍 쓸 때 이거를 이런
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.

00:10:11.313 --> 00:10:14.033

그런데 이거를 쓰면 안 되죠.

00:10:14.133 --> 00:10:17.861

받침에는 표이 조건
안에 없잖아요.

00:10:17.961 --> 00:10:19.686

7개 안에 표이 없죠.

00:10:19.786 --> 00:10:22.089

그래서 이거를 쓰면 안
되고 뭐를 써야 됩니까?

00:10:22.189 --> 00:10:25.120

여기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
거를 써야 되는데,

00:10:25.220 --> 00:10:29.582

그래서 커피숍, 벼을
써야 됩니다.

00:10:29.682 --> 00:10:31.240

벼은 여기 있죠.

00:10:31.340 --> 00:10:34.926

그래서 받침에 대한
규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

00:10:35.026 --> 00:10:40.102

그 받침 규정에 있는 7개의
자음만 받침에 써줘야 된다는 거

00:10:40.202 --> 00:10:42.793

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

00:10:42.893 --> 00:10:46.758

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.

00:10:46.858 --> 00:10:49.031

제4항입니다.

00:10:49.131 --> 00:10:59.102

제4항은 된소리에 대한 이야기인데.

00:10:59.202 --> 00:11:05.792

파열음 표기에요.

00:11:05.892 --> 00:11:14.236

파열음 표기에는,
간단하게 적겠습니다.

00:11:14.336 --> 00:11:22.683

파열음 표기에는
된소리를 적지 않는다.

00:11:22.783 --> 00:11:25.048

무슨 이야기냐, 거기 한번 볼까요?

00:11:25.148 --> 00:11:28.008

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를 적고 어떤
경우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면

00:11:28.108 --> 00:11:29.847

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죠?

00:11:29.947 --> 00:11:31.397

이거 이해되지요?

00:11:31.497 --> 00:11:36.667

무성 파열음 p, t, k 같은
경우에는 영어, 독일어에서는

00:11:36.767 --> 00:11:40.072

이게 프, 트, 크 한마디로
된소리로 들리고요.

00:11:40.172 --> 00:11:45.532

그다음에 프랑스, 러시아에서는 뽀,
뜨, 꼬에 가깝게 들린단 말이에요.

00:11:45.632 --> 00:11:48.931

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고
어떤 경우에는 거센 소리로 적는다.

00:11:49.031 --> 00:11:51.943

이렇게 되면 혼란이
생길 수밖에 없겠죠.

00:11:52.043 --> 00:11:57.124

그러니까 똑같은 파열음이라고 해도
나라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.

00:11:57.224 --> 00:11:59.219

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다?

00:11:59.319 --> 00:12:00.821

아예 그냥 하나로 정하자.

00:12:00.921 --> 00:12:04.283

파열음 표기를 할 때에는
된소리를 쓰지 말자는 것입니다.

00:12:04.383 --> 00:12:10.279

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

00:12:10.379 --> 00:12:13.701

이거 어떻게 씁니까?
버스라고 하죠.

00:12:13.801 --> 00:12:16.668

그래서 실제 발음은
빠스, 빠이쥬.

00:12:16.768 --> 00:12:18.063

된소리로 납니다, 빠스.

00:12:18.163 --> 00:12:20.949

그런데 그렇다고 해서
빠스라고 쓰지 않습니다.

00:12:21.049 --> 00:12:24.475

된소리로 쓰지 말자고 했으니까.

00:12:24.575 --> 00:12:26.469

버스가 맞습니다.

00:12:26.569 --> 00:12:29.301

발음은 빠스로 되지만
이게 맞다는 거죠.

00:12:29.401 --> 00:12:31.131

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.

00:12:31.231 --> 00:12:33.069

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죠, 이미.

00:12:33.169 --> 00:12:36.023

좀 헛갈리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.

00:12:36.123 --> 00:12:40.099

빠스는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.

00:12:40.199 --> 00:12:43.555

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써요?

00:12:43.655 --> 00:12:48.012

이것도 까스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
된소리로 쓰지 말자고 했죠?

00:12:48.112 --> 00:12:50.423

그래서 이거는 가스, 이렇게
써줘야 되는 것이고.

00:12:50.523 --> 00:12:52.791

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

00:12:52.891 --> 00:12:59.966

이런 것들은 꺾이 아니고
꺾,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.

00:13:00.066 --> 00:13:03.819

된소리를 쓰지 않으면 되겠습니다.

00:13:03.919 --> 00:13:08.506

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

00:13:08.606 --> 00:13:12.263

의외로 시험 문제에 잘
나오는 게 있어요.

00:13:17.867 --> 00:13:21.545

이거를 쓸 때 카페라고
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00:13:21.645 --> 00:13:27.533

이거 된소리 쓰지 말자고
했으니까 카페가 맞습니다.

00:13:27.633 --> 00:13:29.370

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.

00:13:29.470 --> 00:13:31.883

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
나오는 것들이죠.

00:13:31.983 --> 00:13:37.245

그다음에 제5항으로
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37.345 --> 00:13:51.445

이번에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
그냥 놔두자는 이야기예요.

00:13:51.545 --> 00:13:56.275

한마디로 이미 굳어져서 사람들이
그냥 자주 쓰는 그런 것들은

00:13:56.375 --> 00:13:59.206

관용을 인정해주자는 이야기예요.

00:13:59.306 --> 00:14:05.684

이미 굳어진 외래어는,

00:14:05.784 --> 00:14:11.743

사람들이 많이 써서
이미 굳어진 외래어는

00:14:11.843 --> 00:14:16.527

관용을 존중한다.

00:14:16.627 --> 00:14:18.791

포인트만 써볼게요.

00:14:18.891 --> 00:14:23.905

이것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.

00:14:24.005 --> 00:14:28.903

예를 들어서 카메라.

00:14:29.003 --> 00:14:35.361

카메라도 발음을 봤을 때 캐머러,
라고 쓰는 것이 괜찮겠죠.

00:14:35.461 --> 00:14:38.083

그런데 캐머러, 라고 안 쓰고

00:14:38.183 --> 00:14:41.861

우리는 오랫동안 카메라로
발음을 해왔단 말이죠.

00:14:41.961 --> 00:14:45.007

카메라로 발음하고
카메라로 써왔어요.

00:14:45.107 --> 00:14:48.758

그래서 이럴 때는 카메라로 오래
사용해온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서

00:14:48.858 --> 00:14:52.353

관용을 따르도록 한
거라고 나와 있습니다.

00:14:52.453 --> 00:14:56.410

그래서 이미 굳어진
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.

00:14:56.510 --> 00:14:59.726

이렇게 다섯 가지 외래어
표기법 원칙이 있습니다.

00:14:59.826 --> 00:15:02.029

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

00:15:02.129 --> 00:15:08.131

그다음은 로마자 표기법으로
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5:08.231 --> 00:15:09.558

여기 나와 있죠?

00:15:09.658 --> 00:15:11.783

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
우리나라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

00:15:11.883 --> 00:15:13.234

어떻게 해야 할까요?

00:15:13.334 --> 00:15:21.728

일단 우리 외국인이 모르는
길이 있단 말이에요.

00:15:21.828 --> 00:15:23.628

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데

00:15:23.728 --> 00:15:25.580

우리말을 읽을 수 있어야
되단 말이에요.

00:15:25.680 --> 00:15:27.927

그런데 우리말이 표기되어 있는 거.

00:15:28.027 --> 00:15:31.420

우리말을 못 읽으니까 영어로
바꿔서 써야 되잖아요.

00:15:31.520 --> 00:15:35.081

그런데 영어로 바꿀 때도 나름의
규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.

00:15:35.181 --> 00:15:40.499

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화의

교류가 활발해지면서

00:15:40.599 --> 00:15:46.173
인명,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국제 문자인 로마자로 표기할 필요성이 대두됐다.

00:15:46.273 --> 00:15:49.042
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왜 생겨났냐?

00:15:49.142 --> 00:15:53.835
국어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규정한 거다.

00:15:53.935 --> 00:15:55.916
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

00:15:56.016 --> 00:15:58.261
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

00:15:58.361 --> 00:16:02.327
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에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.

00:16:02.427 --> 00:16:06.598
여기서도 제가 포인트 부분만 딱딱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

00:16:06.698 --> 00:16:09.050
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.

00:16:09.150 --> 00:16:13.445
보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 핵심 부분을 써놨기 때문에

00:16:13.545 --> 00:16:15.460
어렵지 않을 것입니다.

00:16:15.560 --> 00:16:18.964
ㄱ은 g, k

00:16:19.064 --> 00:16:22.198
ㄱ은 kk, 이런 식으로 쓰자는 이야기입니다.

00:16:22.298 --> 00:16:24.595
예를 들어 까마귀라고 할 때

00:16:24.695 --> 00:16:28.232
까를 어떻게 쓰자는 거예요?

00:16:28.332 --> 00:16:34.781
외국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ㄱ을 kk, 이렇게 하라는 거죠.

00:16:34.881 --> 00:16:36.294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16:36.394 --> 00:16:39.322
이 표를 외워야 돼요,

안 외워야 돼요?

00:16:39.422 --> 00:16:41.408

표를 외워야 되죠.

00:16:41.508 --> 00:16:43.028

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.

00:16:43.128 --> 00:16:46.782

수능이랑 모의고사를 보면 이 표를 외우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.

00:16:46.882 --> 00:16:48.727

아예 이 표를 제시해줘요.

00:16:48.827 --> 00:16:50.713

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시험에서는.

00:16:50.813 --> 00:16:54.178

왜냐하면 거기서는 어떤 지식을 측정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.

00:16:54.278 --> 00:16:58.144

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

00:16:58.244 --> 00:17:01.996

잘 로마자가 잘 표기되어 있는가,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.

00:17:02.096 --> 00:17:06.876

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독서와 문법이라든지 내신 시험 있죠?

00:17:06.976 --> 00:17:10.688

고등학교 예비 고1들이 수강생 중에 많은데

00:17:10.788 --> 00:17:14.893

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을 볼 때 내신은 암기잖아요.

00:17:14.993 --> 00:17:16.366

암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

00:17:16.466 --> 00:17:21.174

그래서 정말 극악의 난이도,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냐.

00:17:21.274 --> 00:17:25.574

이 표를 외워서 적용할 수 있냐,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.

00:17:25.674 --> 00:17:28.963

그래서 내신 시험과 수능 및 모의고사 시험에

00:17:29.063 --> 00:17:32.007

대비하는 접근 방식, 로마자를 공부하는 접근 방식을

00:17:32.107 --> 00:17:33.700
달리해야 되겠습니다.

00:17:33.800 --> 00:17:36.484
쉽게 이야기하면 내신은
그냥 다 외워야 되고요.

00:17:36.584 --> 00:17:40.704
수능 및 모의고사를 대비하려면
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.

00:17:40.804 --> 00:17:43.729
그러면 여기서 헛갈리는
게 바로 뭐겠어요?

00:17:43.829 --> 00:17:45.194
보세요.

00:17:45.294 --> 00:17:47.141
다른 것들은 다 1대
1 매칭이에요.

00:17:47.241 --> 00:17:49.999
그런데 1대 1 매칭이 안
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.

00:17:50.099 --> 00:17:51.330
바로 이거.

00:17:51.430 --> 00:17:53.361
어떨 때는 g, 어떨 때는 k.

00:17:53.461 --> 00:17:56.474
여기 ㄷ도 어떨 때는 d,
어떨 때는 t로 쓰고.

00:17:56.574 --> 00:17:59.651
이런 것들만 구별을
잘 해주면 돼요.

00:17:59.751 --> 00:18:01.668
ㅂ도.

00:18:01.768 --> 00:18:03.119
파열음이네요.

00:18:03.219 --> 00:18:08.299
어떤 거는 b로, 어떤 것은
p로 발음된단 말이에요.

00:18:08.399 --> 00:18:14.451
ㄹ도 어떨 때는 r,
어떨 때 l이에요.

00:18:14.551 --> 00:18:19.915
그래서 제가 여기에
정리를 해놨어요.

00:18:20.015 --> 00:18:23.174
ㄱ, ㄷ, ㅂ은 모음
앞에서는 g, d, b

00:18:23.274 --> 00:18:26.095
아주 깔끔하게 명쾌하게 정리해놨죠?

00:18:26.195 --> 00:18:30.668
그리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
k, t, p로 적음.

00:18:30.768 --> 00:18:32.632
외워두세요.

00:18:32.732 --> 00:18:37.700
그다음에 큰 모음 앞에서 r,
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되

00:18:37.800 --> 00:18:44.283
큰 큰 ll로 적는다, 이렇게
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18:44.383 --> 00:18:51.849
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
것들 어려운 것들을 보면,

00:18:51.949 --> 00:18:54.978
ll로 적는다는 게 이해가
안 될 수도 있어요.

00:18:55.078 --> 00:18:58.570
울릉도 같은 경우.

00:18:58.670 --> 00:19:01.947
큰 큰 이 나오잖아요, 이런
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19:02.047 --> 00:19:05.363
이럴 때는 ll로 적어야
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19:05.463 --> 00:19:13.518
그래서 170쪽부터
171쪽까지 쪽 읽어보면

00:19:13.618 --> 00:19:15.855
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나오고요.

00:19:15.955 --> 00:19:18.909
그다음에 이거 말고도
제3항부터 제8항까지

00:19:19.009 --> 00:19:22.087
171쪽에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.

00:19:22.187 --> 00:19:30.420
그리고 우리가 자음의 로마자
표기만 봤는데 모음도 있어요.

00:19:30.520 --> 00:19:32.659
단모음의 로마자 표기는 이러하고요.

00:19:32.759 --> 00:19:36.426
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

그냥 가볍게 보면 돼요.

00:19:36.526 --> 00:19:40.454

그다음에 이중 모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00:19:40.554 --> 00:19:43.024

책에 나와 있어요.

00:19:43.124 --> 00:19:48.375

그다음에 171쪽에 보면 제3항의 내용이 있어요.

00:19:48.475 --> 00:19:51.492

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.

00:19:51.592 --> 00:20:01.279

부산 같은 경우보면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고.

00:20:01.379 --> 00:20:04.575

제4항에 보면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.

00:20:04.675 --> 00:20:06.819

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

00:20:06.919 --> 00:20:08.840

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.

00:20:08.940 --> 00:20:12.522

그래서 송나라라는 이름을 쓴다면

00:20:12.622 --> 00:20:14.804

Song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단?

00:20:14.904 --> 00:20:18.687

Nari, 이렇게 붙여서 써도 되고

00:20:18.787 --> 00:20:24.988

그다음에 Na와 ri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.

00:20:25.088 --> 00:20:29.246

그다음에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.

00:20:29.346 --> 00:20:31.978

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.

00:20:32.078 --> 00:20:33.154

바로 뭐니까?

00:20:33.254 --> 00:20:35.077

한복남 씨 아니겠습니까?

00:20:35.177 --> 00:20:38.723

사람 이름이에요.

00:20:38.823 --> 00:20:40.875
성이 한 씨고 이름이 북남이에요.

00:20:40.975 --> 00:20:43.993
그런데 실제로 이거 발음될
때 어떻게 됩니까?

00:20:44.093 --> 00:20:46.797
한봉남으로 된단 말이에요.

00:20:46.897 --> 00:20:50.756
그런데 이 음운 변동의
상황을 쓸 때 반영하느냐?

00:20:50.856 --> 00:20:52.373
아니라는 말이죠.

00:20:52.473 --> 00:20:54.606
그냥 이거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.

00:20:54.706 --> 00:20:56.355
그래서 어떻게 쓴다?

00:20:56.455 --> 00:21:07.424
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an Boknam,
이렇게 써준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1:07.524 --> 00:21:11.261
중간에 Bok과 nam 사이에
붙임표를 넣어줘도 되겠죠?

00:21:11.361 --> 00:21:16.880
그다음에 5항 도, 시, 군, 읍,
면, 리,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

00:21:16.980 --> 00:21:21.313
여기서 가는 읍지로 3가, 읍지로 4가
할 때 그 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0:21:21.413 --> 00:21:23.129
행정 구역 단위예요.

00:21:23.229 --> 00:21:30.808
그래서 각각 do, si, gun, gu, eup,
myeon, ri, dong, ga

00:21:30.908 --> 00:21:33.242
이거는 읽어보면 다
아는 내용입니다.

00:21:33.342 --> 00:21:37.671
우리 실제로 밖에 나가서 초록색
표지판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.

00:21:37.771 --> 00:21:40.565
우리말 밑에 로마자로
적혀 있잖아요?

00:21:40.665 --> 00:21:43.652

그리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.

00:21:43.752 --> 00:21:45.808

붙임표 앞뒤에서
일어나는 음운 변화.

00:21:45.908 --> 00:21:48.142

음운는 변동은 표기에
반영하지 않는다.

00:21:48.242 --> 00:21:49.480

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

00:21:49.580 --> 00:21:51.282

음운 변동이 일어나더라도

00:21:51.382 --> 00:21:54.251

그 음운 변동을 표기에
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0:21:54.351 --> 00:21:59.438

그다음에 제6항을 보면 자연
지물명, 문화재명, 인공 측 조물명은

00:21:59.538 --> 00:22:01.481

붙임표를 쓰지 않습니다.

00:22:01.581 --> 00:22:03.808

그래서 독도, 경복궁,
독립문 안 씁니다.

00:22:03.908 --> 00:22:05.341

붙임표 없어요.

00:22:05.441 --> 00:22:09.889

그다음에 제7항 인명, 회사명, 단체명
등은 그동안 써온 표기로 쓸 수 있다.

00:22:09.989 --> 00:22:19.822

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명을
언급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

00:22:19.922 --> 00:22:21.309

예시에 나와 있으니까.

00:22:21.409 --> 00:22:24.924

삼성 같은 경우는 그냥
읽으면 삼성이 돼요.

00:22:25.024 --> 00:22:30.679

그런데 삼성, eo로 써야 되는데
쓰던 대로 둔다는 거예요.

00:22:30.779 --> 00:22:33.282

왜냐하면 이거를 로마자
표기법에 맞게 쓰려고

00:22:33.382 --> 00:22:37.162

다 기존에 있는 로고를 바꾸면
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

00:22:37.262 --> 00:22:40.872
그래서 기존에 써왔던 표기가 있다면

00:22:40.972 --> 00:22:44.932
로마자 표기법에 안 맞아도
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2:45.032 --> 00:22:49.618
그다음에 학술 연구
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

00:22:49.718 --> 00:22:51.678
한글 복원을 전제로
표기할 경우에는,

00:22:51.778 --> 00:22:53.575
그러면서 좀 특수한
경우가 나와 있는데

00:22:53.675 --> 00:22:56.953
제8항은 가볍게 읽어만
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2:57.053 --> 00:23:00.418
8항은 실제 시험에서 나올
가능성이 희박하고요.

00:23:00.518 --> 00:23:04.218
그러면 여기까지 로마자
표기법을 다 봤고요.

00:23:04.318 --> 00:23:06.387
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볼 거냐면

00:23:06.487 --> 00:23:09.499
여태까지 국어의 규범
했던 것 중에서

00:23:09.599 --> 00:23:13.364
좀 의미 있는 문제를
풀어보고 싶은데.

00:23:13.464 --> 00:23:22.333
저는 176쪽에 3번
문제를 풀어주고 싶어요.

00:23:25.544 --> 00:23:29.693
수능 평가원 기출문제
풀어보기에서 3번 문제를 보면,

00:23:29.793 --> 00:23:33.428
흐름을 보세요.

00:23:33.528 --> 00:23:39.801
국어의 규범들을 보기로 주는 형태가
많단 말이에요, 기출 문제를 보면.

00:23:39.901 --> 00:23:43.601
그런데 그게 국어의 규범
자체를 지식 측정하는

00:23:43.701 --> 00:23:52.026
규범을 아냐, 모르냐 이런 지식 측정의
문제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.

00:23:52.126 --> 00:23:53.082
그거는 무슨 이야기냐?

00:23:53.182 --> 00:23:54.219
이거는 모르면 틀린다는 이야기에요.

00:23:54.319 --> 00:23:55.643
그래서 이거 보세요.

00:23:55.743 --> 00:23:59.471
3번 문제가 우리에게
주는 충격을 보라고요.

00:23:59.571 --> 00:24:02.316
밀줄 친 부분이 한글
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?

00:24:02.416 --> 00:24:04.009
이게 수능에 나왔다니깐요.

00:24:04.109 --> 00:24:05.796
그러니까 맞춤법을 아냐, 모르냐.

00:24:05.896 --> 00:24:07.357
그러니까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.

00:24:07.457 --> 00:24:11.720
보기를 보면서 정보 처리를
할 수 없단 말이에요.

00:24:11.820 --> 00:24:14.578
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?

00:24:14.678 --> 00:24:16.979
정답은 몇 번이에요? 2번이죠.

00:24:17.079 --> 00:24:22.371
부치기로, 부치다도
교재에 나와 있었죠.

00:24:22.471 --> 00:24:27.718
소포를 부치다, 혹은 편지나
물건 따위를 보내다.

00:24:27.818 --> 00:24:30.078
이런 의미를 지니잖아요.

00:24:30.178 --> 00:24:35.815
그리고 이거랑 좀
헛갈리는 게 불이다.

00:24:35.915 --> 00:24:38.679
부치다는 보내다,
send의 의미이고.

00:24:38.779 --> 00:24:41.575
불이다, 풀로 불이다.

00:24:41.675 --> 00:24:46.113

이거를 구별할 수 있냐,
이런 문제였죠.

00:24:46.213 --> 00:24:49.764

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
틀렸다는 이야기인데

00:24:49.864 --> 00:24:54.081

1번은 어제 저녁의
준말이니까 뭐가 맞습니까?

00:24:54.181 --> 00:24:57.670

엣저녁이 맞는 표기라는 거예요.

00:24:57.770 --> 00:25:09.531

그다음에 3번, 적지 않은의
준말이니까 적잖은이 맞는 거죠.

00:25:09.631 --> 00:25:13.596

그다음에 이거, 우리가 시험에
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게

00:25:13.696 --> 00:25:14.927

드디어 나왔죠.

00:25:15.027 --> 00:25:19.607

각두기가 맞죠.

00:25:19.707 --> 00:25:22.697

각뚜로 발음이 되지만 쓸
때는 이게 맞는 거죠.

00:25:22.797 --> 00:25:24.668

지난 번에 배웠고.

00:25:24.768 --> 00:25:31.959

그다음에 편편하고 얇으면서 꽤
얇다, 라는 뜻이니까 넓적하게.

00:25:32.059 --> 00:25:34.788

이렇게 써야겠죠.

00:25:38.796 --> 00:25:43.763

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.

00:25:43.863 --> 00:25:47.213

은근히 많은 친구들이
이 문제를 틀렸어요.

00:25:47.313 --> 00:25:50.755

그래서 이렇게 한
문제 정도 풀어드리고

00:25:50.855 --> 00:25:55.539

나머지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
복습점 풀어봐주면 되겠습니다.

00:25:55.639 --> 00:25:59.482

이렇게 해서 오늘 국어의

규범을 모두 마칩니다.

00:25:59.582 --> 00:26:03.246
그러면 마지막으로 문법 화룡점정
O, X 퀴즈 들어가 봐야 되겠죠.

00:26:03.346 --> 00:26:05.678
1번, 2번 바로 정답 나오나요?

00:26:05.778 --> 00:26:10.867
바로 정답 나왔으면 수강 후기에
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

00:26:10.967 --> 00:26:16.082
국어의 규범이 끝나고
다음 시간 마지막으로

00:26:16.182 --> 00:26:18.076
우리가 어떤 것을 공부할 거냐면

00:26:18.176 --> 00:26:20.770
국어의 변천, 이 부분을
공부할 겁니다.

00:26:20.870 --> 00:26:23.622
우리가 국어사라고도
하는 그런 부분인데요.

00:26:23.722 --> 00:26:27.503
우리 친구들이 또 이 부분
정리를 잘 해주셔야만

00:26:27.603 --> 00:26:31.047
우리가 멋지게 화룡정점을
찍을 수가 있습니다.

00:26:31.147 --> 00:26:33.960
그러면 다음 시간에
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

00:26:34.060 --> 00:26:36.420
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

00:26:36.520 --> 00:26:41.963
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.